

2018년 11월 30일, 제주시 이호2동 오도마을복지회관, 이효순 조사.

제보자1: 김상철(남, 1933년생, 제주시 이호2동)

- 이호2동 오도롱마을에서 태어나고 85년째 거주하고 있다.

제보자2: 고영수(남, 1940년생, 제주시 이호2동)

- 이호2동 오도롱마을에서 태어나고 78년째 거주하고 있다.

• 줄거리: 도두동과 이호동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는 길목에 '웨눈벡이'라는 큰 암석이 있는데, 눈을 닮은 구멍 하나가 뚫려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모두 돌을 던졌다. 세 번 던져 그 구멍을 맞히는데, 한 번이라도 맞히면 그날을 재수가 좋은 날이라고 한다.

[조사자] 웨눈벡이바위 그 말도 해줄서.

[제보자1] 바로 여긴데 거기 보믄 쪼만한 굴이 하나 잇엇어. 그 웨눈벡이 바위가 짹 내려앉았는데 공사허문서 이것 저것 돌멩이도 하주마는 팔아먹으려고 하다 걸려서 안 됰서 내려앉았는데 질도 좋고 장비가 잇어도 세우지도 못허는데 아주 유명하지.

[제보자2] 웨눈벡이라는 큰 암석이 잇는데 눈을 향해 구멍이 뚫려 잇어. ㅎ꼼 파졌지.

[제보자1]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눈 닮은 게 특출허게 하나 잇어. 글로 지나가면서 돌멩이를 맞으면 재수 좋다고 허고.

[제보자2] 셋 중에 한 번이라도 딱 정통으로 맞으면 그 날 재수가 좋다고 해서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이든, 이호 사람이든, 오도롱 사람이든, 도두리 사람부터 목장에 갈 때 그 길로 많이 갔거든. 가면서 웨눈벡이 돌로 자갈로 헤가지고 딱 하믄 안 맞고, 두 번 헤도 안 맞고, 세 번째라도 맞으믄 '오늘 기분 좋다. 재수 좋다.' 이런 이야기를 허문서 계속 돌 던지면서 갓주기. 경허영 웨눈벡이렌 하기도 허고.

[제보자1] 도두 사람들이 월랑으로 헤서 가는 사람 얼마 없고 글로, 큰가름 쪽으로 백개에 선 그 길로 출입햇주기.

[제보자2] 길이 일로도 오고 일로는 도두리 사람들이 잘 오주기. 내창에 딱 맞춰가지고.

그런 얘기가 있어.

세 번 중에 한 번만 맞아도 재수가 좋다. 그런 식으로 해서 도두 사람하고 이호1동 사람, 오도룡 사람은 그런 말만 들어서 했는데 지금도 이호동에서도 동사무소 돌아볼 수 있는 거, 여덟 가진가 열 가지 만들어가지고 이거 헤 낫어. 웨눈벡이돌 해가지고.

[제보자1] 웨눈벡이돌 가운데고 바로 그 우엔 물이 떨어지게 되는데 동녘 바위에는 굴 닮은 게 있어서 그런디 그 바위에 허고 암벽이 잇인디 모란낭이렌 허는 낭이 잇었는데 요만씩 헌디 그거 타먹는다고. 거길 또 따먹도 못해. 걸리믄. 따 먹는다고 허영 몰래 곱아서 따 먹는다고.

[조사자] 경허난 웨눈벡이바위 잇인디로만 갈 수밖에 없구나예?

[제보자1] 경허연. 그디 이젠 다 작고 무너지고 헷주만 웨눈벡이 바로 바위에서 십 메다쯤 해서 동녘 동산에 가면 굴이 하나 있어요. 굴이 하나 있었는데 이젠 거의 다 파불고 하주마는 굴이 잇었는디 거기 들짐승들이 살았어. 그래서 농가에 와서 닦같은 것도 물어 가 불고 그거 잡는다고 덫 헤도 안 들어. 서부에서 유명하죠.

- 핵심어: 웨눈벡이(외눈박이), 재수, 암석, 오도룡, 도두, 백개, 바위, 모란낭, 이호동, 돌